

사회

교차로 신호위반 '4명 사망' 참사 불렀다

어제 출근길 광주 영광동 사거리서 승합차·통근버스 충돌...7명은 부상

광주 주요 도심 교차로에서 출근길에 나선 승합차와 통근 버스가 충돌해 4명이 숨지고 7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했다. 이날 사고는 두 차량 중 한 대가 가장 기본적인 교통법규인 신호를 어기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사고 개요=9일 오전 6시50분께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영광동사거리 교차로에서 조모(50)씨가 몰던 '90수 13×호' 스타렉스 승합차와 M관광 소속 S전자 통근 버스(운전자 김모씨·64) '광주 77사52×호'가 충돌했다.

일용직 근로자들 피해

이 사고로 승합차 운전자 조씨와 통승자 김모(53)씨 등 4명이 숨지고 이모(50)씨는 중상을 입었다. 또 통근 버스에 타고 있던 강모(54)씨 등 6

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승합차는 광주공항에서 송정역 방향으로 직진 중이었으며, 통근 버스는 송정역에서 광산경찰서 방향으로 좌회전 진행 중이었다.

◇왜 피해 컸나? =광산경찰은 이번 사고의 원인을 신호위반으로 추정하고 있다. 두 차량이 교차로 안에서 빠른 속도로 충돌했기 때문이다. 이는 인명 피해를 키우는 요인이 됐다. 사고가 난 도로는 편도 5차선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60km이다.

대개 도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충돌·추돌 직전 급브레이크를 밟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인명 피해가 적다. 급브레이크를 밟으면 순간 속도가 시속 10~20km로 감속된다.

하지만, 이날 사고의 경우 두 차량 중 한 대가 신호위반을 하면서 감속 과정 없이 그대로 충돌했다. 교차로

안에서 양 차량의 운전석끼리 부딪힌 점과 현장에 타이어 자국(스키드마크·skid mark) 흔적이 없는 점은 이를 증명해주는 대목이다. 광산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조사한 바로는 양 차량 중 1대가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어느 차량이 신호를 위반한 것인지 확인은 했으나 목격자 및 운전자 조사와 사고 장면을 담은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명확히 가릴 방침"이라고 말했다.

용감한 시민들 구조 나서

◇인타끼운 죽음-시민 정신 빛났다=조씨 등 승합차에 탄 이들은 6개월 전부터 광산구 평동공단 내에서 수도·시설 설비를 하던 근로자였다. 이들 일행은 총 7명으로 이날 사고가 난 승합차에 5명, 나머지 2명은 다른 차에 나뉘던 뒤 아침을 먹으러 가던 중이었다.

이들 동료에 따르면 송진 김씨는 10일 전부터 처남 일을 도우러 왔다가 변을 당했다. 한 동료는 "가족처럼 한 속소에서 먹고 살았는데, 이날 사고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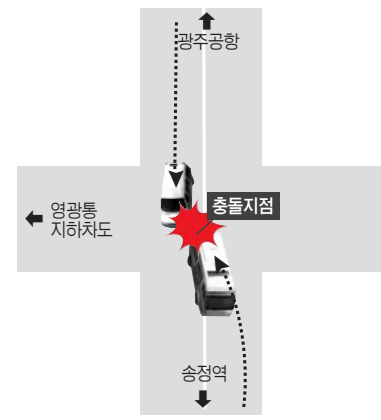
당하다니 믿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교통사고 현장에서는 시민정신이 빛났다. 사고가 발생하자 한 시민이 맞은 편 차선에 자신의 차를 세워놓고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해 교통정리에 나섰다. 출근길 운전자들도

이 남성의 지시에 따라 서행 운전을 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갓길에 차를 세운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광산소방서 구조대원들을 돕기도 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9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영광동 사거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장에서 광산경찰서 경찰관과 광산소방서 구급대원들이 중외장처럼 구겨진 승합차에서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광산소방서 제공>

■ 광산구 영광동 사거리 교통사고 현장



나원침 (8264) 김종두



파업 전주 시내버스

회사 4곳 행정대집행

전주 시내버스 파업이 92일째를 맞은 9일 전주 덕진구청은 호남과 신성, 전일, 전북 등 시내버스 회사 4곳에 대한 행정대집행을 벌였다.

구청 직원과 집행관 등 240여명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주시 팔복동 호남고속 등 버스회사 4곳에 행정대집행을 했고 천막과 초소 등 시설물을 들어냈다.

호남고속의 집행 과정에서 사내 집회를 벌인 민주노총 노조원들과 집회를 벌임으로 규정된 경찰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졌으나 큰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경고 방송 후 노조원들을 에워싸 노조원들을 회사 밖으로 끌어냈고, 일부 노조원들은 회사 밖에서 임시 집회를 연 뒤 낮 12시30분께 자진해산했다.

/전북취재본부=김용철기자 k0765@

'장자연 편지' 원본 23장 확보

경찰, 광주교도소 압수수색... 편지봉투·스크랩 등 2박스 분량

경기경찰청과 분당경찰서는 9일 오후 '장자연 편지' 관련 브리핑을 갖고 광주교도소에 수감된 전모(31)씨의 감방을 압수수색해 장씨가 쓴 원본으로 추정되는 편지 23장과 편지봉투 20여장, 신문스크랩 70여장 등 2박스 분량의 물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경기 분당경찰서 경찰관들이 9일 오전 광주교도소에서 고(故) 장자연씨의 지인인 전모(31)씨의 개인물품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뒤 취재진을 뚫고 철수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압수수색은 전씨가 생활하는 감방, 감방 내 개인사물함, 영치물품 보관함 등 3곳에서 이뤄졌으며, 경찰은 원본으로 추정되는 편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보내 장자연씨의 필적 및 지문감정을 긴급의뢰했다. 국가수의 감정 결과는 통상 2주 후 나오지만 긴급 감정을 의뢰해 빠르면 5~7일 후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한 편지는 전씨가 장자연씨로부터 받았다고 주장한 문건으로, 수기로 작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함께 압수한 편지봉투 20여장 가운데 상당수는 수발신 내역이 없고 5장만 사용흔적이 있다"고 말했다.

장자연 관련 기사가 대부분으로 채워진 신문스크랩은 신문기사를 A4용지에 복사한 사본 형태로, 장씨 기사 상당수에 형광펜으로 표시가 돼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전씨가 교도소에서 우편으로 편지를 받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될 편지봉투의 발신지 및 우체국 소인 존재 여부에 대해서는 "압수하자마자 압수물품함에 넣고

밀봉해 확인하지 못 했다"고 말했다. 국가수로 보내진 원본으로 추정되는 편지 23장은 경찰이 이미 확보해 둔 장자연씨의 친필, 전씨의 친필과 비교 분석과정을 거쳐 이 편지가 장자연씨가 쓴 친필이 맞는지 필적감정과 지문감정이 진행된다. 경찰은 국가수 감정을 통해 이 편지가 장자연씨의 친필로 확인되면 문건 내용의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재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경찰은 국가수의 감정이 진행되는 동안 압수한 신문스크랩을 통해 그동안 공개된 장씨 추정 편지에 인용된 부분이 있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날 프로파일러(범죄심리

관)를 광주교도소에 보내 수감된 전씨의 면담조사를 통해 전씨의 심리 상태 등을 분석했다. /연합뉴스

유사석유 판 주유소 과징금 5천만원 부과

유사석유제품을 판매한 주유소에 대해 여수시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여수시는 9일 "유사석유제품을 중장비 기사들에게 판매한 공화동 송문 주유소에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만취 운항 화물선 압초에 '꽂'

목포해경 긴급 구조... 음주 50대 선장 입건

목포해양경찰은 9일 음주 상태로 선박을 운항해 사고를 낸 895t급 포항선적 화물선 I호 선장 김모(59)씨를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일 밤 9시40분께 진도군 조도면 인근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I호를 운항해 선박이 암초에 부딪히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암초에 부딪힌 I호는 선수부위에 구멍이 나 바닷물이 유입되고, 방향타가 파손됐으나 다행히 침몰하지 않았다. 당시 I호에는 선장을 포함해 7명이 타고있었으며, 화

물을 실지 않은 채 목포에서 출항해 광양으로 향하던 중이었다.

목포해경 관계자는 "선박이 암초에 부딪히면서 인명 사고와 기름 유출로 이어질 뻔 했다"면서 "진도 해상관제센터(VTS)측으로부터 '좌초된 선박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출동해 선장의 음주 운항 사실을 적발했다"고 전했다.

한편, 혈중알코올농도 0.080% 이상에서 5t 이상의 선박을 운항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정수기 비리' 3명 추가 입건

중·고 행정실장 등 업자에 3천만원 받은 혐의

'학교 정수기 납품비리'를 수사 중인 경찰이 업자로부터 '뒷돈'을 받은 학교 관계자들을 추가로 적발했다. 광주서부경찰은 9일 "정수기 설치 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광주지역 중·고 행정실장 등 3명을 최근 뇌물 수수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자신들이 근무하던 학교에 정수기를 설치한 업자 이모(67)씨로부터 총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 학교 관계자는 이씨의 정수기를 자신들의 학교에 설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건으로 '뒷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경찰은 이씨와 이씨에게 돈을

받고 정수기 설치를 허락해준 광주지역 학교 관계자 3명을 각각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혐의로 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광주시교육청 간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다. 경찰은 이씨가 광주지역 학교 30여곳에 정수기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또 다른 학교 관계자 등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건설 현장 들며 자재 훔친 40대 등 4명 절도혐의 구속

화순경찰은 9일 전국 건설현장을 들며 건축자재를 훔친 박모(44)씨 등 4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월 30일께 화순군 화순읍 한 자재 야적장에서 철제빔 50t(시가 6000만원 상당)을 훔치는 등 전남과 경기 등에서

14차례에 걸쳐 총 7억원 상당의 건축자재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고창 선후배 사인 박씨 등은 경마장 도박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을 돌아다니며 전문적으로 공사자재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의 대법한 범죄수법으로 미뤄 추가 범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캐고 있다. /충부취재본부=정운수기자 unsu@

생다발

○...고객이 배운을 맡긴 서류 봉투를 뒤져 수백만원의 현금과 통장 등을 훔쳐 잠적한 30대 오토바이 퀵서비스 기사가 경찰서 행.

○-9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퀵서비스 기사 임모(34)씨는 지난 4일 오전 10시30분께 염모(47)씨가 "××은행 직원에게 전달해달라"며 건넨 현금 385만원과 통장, 도장 등이 들어있는 서류봉투를 챙겨 잠적했다는 것.

○-경찰조사 결과 임씨는 이날 염씨로부터 서류봉투를 건네 받은 뒤 만져보던 중 현금이 들어있다는 사실을 잠적한 뒤 이 같은 일을 벌였는데, 경찰의 수사망이 좁혀지는 것에 부담을 느껴 자수. /김호기자 kimho@kwangju.co.kr

편입할 사람 김영에 다 모여라! 대학편입 1학년부터 시작하자! 편입은 인생을 바꾸는 것이다! 상위권 대학/전남대편입 전문강좌/편입영어/편입수학/TEPS

2012 학년도

대학편입은 김영과 함께

14만 합격자가 말한다

김영편입학원

www.kimyoung.co.kr

광주 동부경찰서 뒤 227-8088

개강 1월